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참으로 오랜만에 책을 썼다. 김정은 문화심리학자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 노란색 표지로 된 책을 넘겼다. 작가의 서문을 읽었다. 아흔이 된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작가의 말 마무리에는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언어에 가슴에 울적 치밀 어오르는 울음을 조용히 삼키었다. 내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도 이어져 갈 기록하고 송고한 단어 어머니라는 언어는 지금도 그리고 사무치는 것은 모든 자식도 마찬가지로...

최근 영유아 교육기관에 부모교육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교권 침해에 관한 영상 시청이 의무가 됐다. 이는 단순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부모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아이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성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학부모 민원에 대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이우지 개그우먼의 학부모 패러디 영상이나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는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웃음과 풍자

기고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과 일일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속하고 지켜왔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항해 4·19 혁명이 일어났고, 1987년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만들어냈다. 투표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믿어 지키고 실천해 왔다. 그런데 정당하게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절차의 정당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 임원과 대표자(학생회장)를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체득했고, 투표일은 공민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 인식하고 있다. 언론은 후보 검증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앞다퉀 보도하며 관심을 끌어올리고 각 기관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며 투표가 얼마나 중요인지 강조한다.

그런데 절차 그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사람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과 혼란이 발생했고, 일부 유권자들은 정상적인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칙과 특권, 편법과 꼼수가 없는 사회를 기대했던 청년들에게 이번 사태는 정의와 상식, 공정과 합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

돌봄의 시대, 아이들의 마음을 묻다

속에 담긴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부모와 학교,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돌봄센터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아이를 위한 정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다니고,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세심하게 관리하려 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학습과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과 요구에 대응하느라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경험과 실제 이야기가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모두 놀라는 상황이다.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서안정의 길을 잃고 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때로는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작은 갈등이나 실패조차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된다. 친구와의 다툼, 학교생활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일 수 있지만,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아이의 자율성

과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보다 관계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한다고 말한다. 포레 관계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부모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며, 다양한 활동 속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돌봄은 늘어났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에 아이들이 감정의 길을 잃고 있다고 한다. 부모교육은 단순히 자녀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아이의 삶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이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양육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다. 부모교육의 목적도 부모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부모 스스로 돌아보고 아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돌봄은 넘쳐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외로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를 묻기보다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물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믿음과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품어주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돌봄의 사회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진 6월 3일

했던 행정 착오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준 국민을 기만한 사건이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에 광주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그래픽이 삽입돼 논란이 된 점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외주업체의 제작 과정이나 AI 활용 여부를 떠나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콘텐츠라면 충분한 검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의도는 없었다', '검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지역민들이 느낀 불쾌감을 씻기엔 부족하다.

부실한 선거관리의 운영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청년들의 권리는 또다시 침해받았다. 부실선거를 공론화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위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와는 무관한 다른 세력들이 개입해 메시지를 타락하고 있다. 태극기만 흔들며 달라는 외침 앞으로 선조기를 흔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현장을 중계하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권 일부 유튜브들은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대회에 참가한 중학생 핸드볼 선수들의 짐을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상황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여기에 중구의 개입설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반복되면서 정작 청년들이 제기한 참정권 침해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투표할 권리로 보장받지 못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마저 오열 때버렸다. 더 문제는 투표 결과다. 지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가지고 대변해 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의 의원으로 당선된 411명 중 청년(39세 이

하) 의원은 단 23명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청년(19~39세) 인구 비율은 광주 27.1%, 전남 21.1%인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청년 의원은 단 5.5%에 불과하다. 의회가 반드시 인구 비율대로 구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년만이 청년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분명 부족한 구성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청년에게 허용된 자리가 고작 5.5%에 불과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다. 청년들은 참정권을 침해 받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은 왜곡됐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는 부족하다. 여기에 공공기관마저 시민과 지역사회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정치 진영의 논리를 떠나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며 권리를 외치는 청년이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썩는다. 사용하지 않은 권리도 마진기다. 이번 사건은 이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확신하게 만든 사건이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청년의 권리를 다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고 다시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를 바란다.

사설

지역 미래 책임질 '통합특별시' 성공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가 1일 출범했다. 전남과 광주로 분리된 지 40년만에 다시 하나가 돼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명, 연간 예산 29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로 경제 규모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인구 수는 전국 5위인 거대 광역 자치단체다. 특히 현정사에 기록될 광역 자치단체들이 통합된 첫 사례로 수도권 일극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돼야 한다는 사명도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통큰 선물을 줬다.

이에 통합특별시도 제1호 정책 조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집행부와 통합특별시 의회가 하나로 뭉쳐 투자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지난날 30일 정부 등이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총 800조원을 투입해 특별시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들 투자기업의 초기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부지·전력·용수·인재 양성·인허가 등 지원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부터 핵심 기반시설 지원,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심의·자문·조정하는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앵커기업·소부장 기업 유치,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적기 공급, 전문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통합특별시에 절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기대 반 우려반'이다.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이견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와 반도체 산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팍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 전문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합특별시가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진화중

청년 창업이 여전히 높은 장벽인 시대,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가 눈에 띈다.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창업 생태계 요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 창업 위주의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교육,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업가 및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 전국에서 두번째로 설립한 기관이다.

그동안 창업 후 3년 이내, 고용·부가 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의 39세 이하 창업 기업 대표를 일고 대상으로 선발해 창업 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청년창업사관학·창업 준비 공간 등을 제공해 왔다.

또 창업 단계별 집중 교육과 코칭, 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장비 지원과 함께 정책 자금, 해외 판로 마케팅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648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며 지역 대표 창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그동안 25개 팀으로 한정했던 선발 팀을 배 가까이 늘렸다. 최근 4년(12기 55명, 13기 48명, 14기 45명, 15기 45명)간 248명을 배출했고 이들이 창출한 매출액은 361억9400만원, 고용 인원은 274명으로 집계됐다. 설립후 지금까지 기술창업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이 학교는 최근 진화하고 있다.

설립 당시 지역 창업환경이 열악해 소규모 제조업에 치중됐던 교육 프로그램을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모빌리티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바꾼 것이다. 올해부터는 아예 글로벌·딥테크계로 확대 개편했다. 창업 초기 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첨단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창업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I와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혁신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 학교가 앞으로도 기술 기반 청년창업기업 육성에 올인해 지역 대표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바란다.

취재수첩

본격적인 장마철, 철저한 안전 대비를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1일 내린 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본격화됐다. 기상청은 3~4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고, 이후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장마는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언제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장마의 양상도 바꿔놓았다. 예전처럼

며칠 동안 꾸준히 비가 내리는 대신, 짧은 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그 위험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난해 7월17일 하루 동안 424.6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일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폭우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고, 281가구 40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구 소태천 범람 우려로 소태·용산·운림동 주민 33명은 동구문화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사 밤을 지새워야 했다. 동구 지산동과 북구 소태동·금곡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사유림 3.48ha가 피해를 입는 등 도시 곳곳이 물과 흩더미에 휩쓸렸다.

올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기상청은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와 같은 극한호우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1일 민선 9기를 시작한 전남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첫 공식 일정으로 '안전'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취임식 직후 접수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살핀 행보는 보여주시기 일정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이었다.

행정의 철저한 대비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다. 집중호우 예보가 내려지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와 비상 연락망을 숙지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살마 캠프"라는 알일함보다 신속한 대피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